

# 벤투 감독 “장점 계승 강한 팀 만들 것”



대한민국 남자 축구대표팀 파울루 벤투 선임 감독이 3일 오후 경기 파주시 축구 국가대표팀트레이닝센터(NFC)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표팀은 오는 7일 코스타리카, 11일 칠레와의 평가전 치른다.

파울루 벤투 축구대표팀 감독은 한국의 2018 러시아월드컵을 실패가 아니라고 규정하면서, 장점을 계승하고 새 옷을 덧입혀 더욱 강한 팀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벤투 감독은 3일 오후 파주시 국가대표팀트레이닝센터(NFC)에서 열린 대표팀 훈련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표팀이 월드컵에서 못했거나, 절망적인 모습을 보인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한국은 신태용 전 감독 체제로 임한 이번 월드컵에서 1승2패를 기록했다 세계 최강 독일을 2-0으로

꺾긴 했지만 스웨덴(0-1), 멕시코(1-2)에 달미를 잡으면서 16강 진출에 실패했다.

벤투 감독은 “16강에 오르지 못했지만 마지막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고 두 경기도 근소한 차이로 패했다. 실패한 대회가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

이제 막 한국 축구와 손을 잡은 벤투 감독은 당분간 큰 변화를 주진 않을 생각이다. 당장의 1승이 목표가 아닌 만큼 장점을 유지하면서 서서히 철학을 녹여들게 하는 방식으로 팀을 만들 계획이다.

“러시아월드컵 16강 못갔지만 실패는 아냐”

“전술적 큰 변화無...부분 전술 조금씩 변화”

벤투 감독은 “전술적으로 큰 변화를 줄 생각은 없다. 훈련을 통해 수비, 공격 등 부분 전술을 조금씩 바꿀 것”이라면서 “기존 한국 대표팀은 적극성, 강렬함, 정신력 등이 좋았다. 이를 잘 유지해 경기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은 7일과 11일 코스타리카, 칠레와 안방에서 A매치를 갖는다. 벤투 감독의 데뷔전이다. 반드시 승리가 따라와야 할 경기는 아니지만 한국팬들과의 첫 만남인 만큼 좋은 인상을 남길 필요는 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퇴색한 축구 열기를 지속시키는 것도 벤투 감독의 몫이다.

한국은 7일과 11일 코스타리카, 칠레와 안방에서 A매치를 갖는다. 벤투 감독의 데뷔전이다. 반드시 승리가 따라와야 할 경기는 아니지만 한국팬들과의 첫 만남인 만큼 좋은 인상을 남길 필요는 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퇴색한 축구 열기를 지속시키는 것도 벤투 감독의 몫이다.

벤투 감독은 “벌리 내다보아야 한다. 당장 아시안게임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고 이후 월드컵 예선을 무난히 통과해야 한다”면서 “그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이번에 최대한 해볼 것이다. 짧은 시간 준비를 해야하지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표팀에는 아시안게임 금메달 멤버가 8명이나 포함됐다. 손흥민(토트넘), 조현우(대구FC), 황의조(강화아사카), 김민재(전북),

황희찬(함부르크), 이승우(베르나), 황인범(아산무궁화), 김문환(부산) 등이다. 이들은 4일 오전 파주 NFC에 입소한다.

벤투 감독은 “선수들이 오면 피지컬 컨디션을 확인해 분석할 것이다. 어떤 몸상태로 합류하는지 체크할 것이다. 정신적으로는 금메달을 따고 왔기에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전했다.

이중 황인범과 김문환은 A대표팀에 최초 발탁됐다. 벤투 감독은 “두 선수는 직접 본 경기력을 바탕으로 선발한 선수들이다. 우리가 본 결과 상당히 뛰어난 조직력과 자질을 갖췄다고 판단했다”며 기대했다.

장현수(FC도쿄)를 수비가 아닌 미드필더로 분류한 배경도 언급했다.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수라고 판단했다. 한 경기만 보고 그런 것은 아니다. 장현수는 여러 포지션에서 뛸 것을 확인했다”는 벤투 감독은 “이는 향후 대표팀을 선발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선수가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은 상당한 장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전남 원클럽맨’ 김영욱 K리그 통산 200경기 달성

전남드래곤즈 캡틴 김영욱 선수가 K리그 통산 200경기 기록을 달성했다.

김영욱 선수는 지난달 15일 KEB하나은행 K리그 27라운드 상주전에 선발 출전하며 200경기 출전이라는 뜻 깊은 기록을 세웠으며, 현재까지 14득점 17도움을 기록중이다.

전남드래곤즈 한팀에서 200경기 출전 달성 기록은 김태영(250경기), 노상태(219경기), 김도근(206경기)에 이어 4번째 기록이다.

전남드래곤즈 유스팀인 광양제철중, 광양제철고를 거친 김영욱 선수는 학창시절부터 보는 시야가 넓고 불을 치는 센스가 만점인 선수로 통했다.

2009년 대교 눈높이배 전국고등학교 왕중왕전에서 팀을 초대 챔피언으로 이끌었으며, 그 대회에서 MVP를 수상했었다.

또한 꾸준한 활약으로 연령별 대표팀에 뽑혔으며, 2011년에는 폴란드 U-20 월드컵 16강 진출에 앞장섰고, 2014년엔 인천 아시안게임에선 금메달 획득에 일조했다.

전남의 캡틴인 김영욱 선수의 장점은 전남의 세트피스를 전담할 정도로 킥이 뛰어나고 패스를 레이에 능한 선수이며, 스피드를 이용한 돌파력과 지칠 줄 모르는 체력, 몸을 아끼지 않는 투혼과 팀을 위한 희생정신이 뛰어난 선수이다.

200경기 출전 기록을 달성한



김영욱 선수는 “지금까지 전남이라는 한 팀에서 200경기를 뛸 수 있었다는 것은 저에게 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 200경기를 뛰면서 팬 분들의 많은 응원과 격려 속에서 더 성장할 수 있었다. 팀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고 저를 위해 응원해주신 팬 분들께 지금까지 이렇게 힘을 내 경기를 뛸 수 있었던 것 같다”면서 “앞으로는 더 많은 승리와 좋은 경기로 보답해드리겠다. 그리고 앞으로 전남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 희생하는 선수가 되겠다. 마지막으로 전남 드래곤즈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감사인사와 소감을 전했다.

김영욱 선수의 200경기 달성을 축하하는 기념식은 오는 16일 순천팔마경기장에서 펼쳐지는 경남과의 홈경기 하프타임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영욱 선수의 200경기 달성을 축하하는 기념식은 오는 16일 순천팔마경기장에서 펼쳐지는 경남과의 홈경기 하프타임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영욱 선수의 200경기 달성을 축하하는 기념식은 오는 16일 순천팔마경기장에서 펼쳐지는 경남과의 홈경기 하프타임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영욱 선수의 200경기 달성을 축하하는 기념식은 오는 16일 순천팔마경기장에서 펼쳐지는 경남과의 홈경기 하프타임에 진행될 예정이다.

200경기 출전 기록을 달성한

평양=김승호 기자

## 축구대표팀 평가전... “우루과이·파나마·우즈베키스탄 나와라”

우루과이, 파나마, 우즈베키스탄이 국가대표팀의 10월과 11월 친선 경기 상대로 정해졌다.

대한축구협회는 다음달 12일 우루과이, 15일 파나마와 국내에서 친선 A매치를 갖기로 했다고 4일 발표했다. 11월 20일에는 호주 브리즈번에서 우즈베키스탄과 대결한다. 우루과이, 파나마전이 열리는 국내 도시와 세 경기의 킥오프 시간은 미정이다.

이로써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국가대표팀의 하반기 A매치 6경기가 모두 확정됐다. 코스타리카(9월 7일·고양)·칠레(9월 11일·수원)·우루과이(10월 12일·국내)·파나마(10월 15일·국내)·호주(11월 17일·호주 브리즈번)·우즈베키스탄(11월 20일·호주 브리즈번) 순서다.

10월 첫 상대 우루과이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5위의 강팀이다. 2018 러시아월드컵에서 8강에

올라 우승팀 프랑스에 패했다. 루이스 수아레스(F0바르셀로나)와 에딘손 카바니(파리생제르망)가 중심이 된 공격진은 세계 최정상급이다. 한국은 지금까지 우루과이와 7번 만나 1무 6패로 한번도 웃지 못했다. 마지막 대결은 2014년 고양에서 펼쳐진 친선경기로 0-1로 패했다.

FIFA 랭킹 69위의 파나마는 한국과의 A매치가 처음이다. 최초의 본선 진출이었던 러시아월드컵에서 튀니지, 잉글랜드, 벨기에에 패해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다. 미국을 제치고 러시아 월드컵 본선에 오른 만큼 좋은 스카팅 파트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루과이와 파나마 두 팀 모두 10월 A매치 기간 중 한국과 일본을 잇달리며 방문해 경기를 치른다.

11월 호주 브리즈번에서 잇따라 열릴 호주, 우즈베키스탄은 내년 1월



대한민국 남자 축구대표팀 파울루 벤투 감독이 3일 오후 경기 파주시 축구국가대표팀트레이닝센터(NFC)에서 선수들의 훈련을 지켜보고 있다.

아시안게임의 전초전 성격이 짙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은 올 1월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과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뛰어난 기량을 선보인 23세 이하

선수들이 대거 발탁될 것으로 보여 접전이 예상된다. 최근 러시아월드컵에서 이집트를 지휘했던 엑토르 쿠페르(아르헨티나) 감독을 선임해 팀을 새롭게 정비하는 중이다.

## FIFA 올해의 선수, 호날두·모드리치·살라 경쟁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 루카 모드리치(레알 마드리드), 모하메드 살라(리버풀)가 국제축구연맹(FIFA) 2018년 올해의 선수를 두고 경쟁한다.

세 선수는 FIFA가 4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18년 올해의 남자 최종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1991년 제정된 이상은 그해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를 뽑는 것으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한다.

2016년과 2017년 트로피를 거머쥔 호날두는 3년 연속 수상에 도전장을 던졌다. 레알 마드리드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3연패를 이끌면서 다시 한 번 영광을 기대하게 됐다.

강력한 라이벌은 모드리치다. 현

존하는 최고의 미드필더로 꼽히는 모드리치는 호날두와 함께 레알 마드리드의 챔피언스리그 3연패에 기여했다.

2018 러시아월드컵 성적은 호날두보다 좋다. 모드리치는 크로아티아의 결승행을 진두지휘했다. 반면 호날두는 포르투갈의 16강 탈락을 막지 못했다.

최종 후보의 또 한 자리는 살라로 채워졌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리버풀 소속으로 EPL 득점왕을 차지했으나 두 선수에 비해 입팩트가 떨어진다.

리오넬 메시(F0바르셀로나)는 또 다시 고배를 마셨다. FC바르셀로나의 챔피언스리그 4강행 실패와 월드컵에서의 조기 탈락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 숲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신정,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라 구례군은 지리산은천, 절재미골, 화현사, 설진강, 운조루, 패야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물어재-기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